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음 3월 13일) 제227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세월호 추모하는 학생들 세월호 5주기인 16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입구에서 학생들이 리본을 매달며 추모를 하고 있다.

**“그날의 아픔, 잊지 않았습니다” ... 세월호 5주기** ▶ 관련기사 3면 · 15면

## 새만금, 전기자율차 미래 산업기지로

전북도·새만금개발청 등 6개 기관, 메카 조성·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자율주행차량 시험대 구축·상용차 군집 자율주행 연구 코랩센터 등 조성

새만금이 전북 지역의 자동차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전기차 자율차 중심의 미래 산업기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새만금 전기자율 미래차 메카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조만승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류도정 한국교

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율차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6개 관계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데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에 중진공의 역량이 더해지고, 자율주행 분야 최고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새만금에 전기자율차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시너지(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자율주행차량의 테스트베드(시험대) 구축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첨단 교통수단의 실증단지 조성하고, 미래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테스트베드는 4월 말 준공을 앞둔 새만금 주행사험장(군산시 옥구읍 소재)을 1단계로, 2단계 새만금 방조제 하부 수변도로 구간, 3단계 새만금 사업지역 내 실 도로 구간 등에 차례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내년부터 새만금 산업에 상용차 군집 자율주행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코랩(Co-Lab)센터 및 테크비즈센터를 조성하고, 투자해택 등 정책지원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전기·자율 미래차의 고도화된 라이터센터, 완성차 등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와 입주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기업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새만금 등 전북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통해 각종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테스트베드의 전반적인 설계와 기술공유를 지원하고, 새만금 지역의 고질적 지도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등의 협력을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전주 특례시 지정돼야”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들도 '한 목소리'

전주의 명예를 높이고 전주발전에 기여해 온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들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나섰다.  
전주시는 4월 한 달 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으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회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홍보활동에 도움을 주기로 뜻을 전한 것이다.  
최찬욱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회 회장은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재원 증가 등이 가능해지면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범시민 서명운동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민의 장은 △효열장과 △교육장, △문화장, △노동·산업장, △공익장, △애향장, △체육장 등 7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은 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으로 손꼽힌다.  
수상자들은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시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예우를 받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소년체전의 성공을 위하여”

전북체육회, 종목단체 총감독 간담회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오는 5월 익산 등 전북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종목단체 총감독 간담회를 체육회 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36개 종목단체 총감독이 참석해 필승 결의를 다졌다.  
또 소년체전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과 각 종목별 경기장 안내, 협조사항, 건의사항 등 다양한 안 내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특히 문화와 예술, 스포츠가 함

께 어우러지는 국민 대통합 한마당으로 대회를 치르자고 한목소리를 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도 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지난해 전북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소년체전도 준비를 철저히 해 역대 최고 축제로 만들자”며 “전북체육의 위상을 다시한번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익산 등 전북 일원에서 열리며 36개 종목 경기가 펼쳐진다. /정은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